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감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름

(토요일 — 오후 집회)

메시지 9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름

(3)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한 새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생활을 실행함

성경: 골 1:24-29, 3:10-11, 4:7-17

I.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 골 1:24-29.

A.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 되었다 — 엡 3:2, 9, 골 1:25.

1.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였다.
 - a. 하나님과 관련해서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한다 — 엡 3:9.
 - b. 우리와 관련해서 ‘오이코노미아’는 청지기 직분을 의미한다 — 엡 3:2.
2.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께 그것은 경륜의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청지기 직분의 문제이다.
3. 교회들 안에서 책임을 지는 이들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참여해야 한다 — 딤후 1:7, 9.
 - a. 장로들은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해야 한다.
 - b.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인도하며 교회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는 이들은 자신이 이러한 신성한 청지기 직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B.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복음 전파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높아져야 한다 — 고전 9:16-17, 마 28:19-20.

1.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첫째 방면은 죄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그들을 접촉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 눅 19:1-10.
2. 우리는 다만 사람들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
3. 우리는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삼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청지기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게 주어졌다 — 마 28:19-20.

C.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따른 교회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 딤후 1:16, 골 1:24-25, 고전 4:1-5.

1. 청지기는 가정 관리자 혹은 분배자, 다시 말하면 가정에 필요한 물자를 집안 식구들에게 분배하는 사람이다. 사도들은 주님께 의해 그러한 청지기들로 임명되어 하나님의 비밀

- 들, 곧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믿는 이들에게 분배했다 — 골 2:2, 엡 3:4, 고전 4:1.
2. 바울이 하나님의 칭지기 직분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한 사실은 칭지기 직분이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 골 1:24, 벧전 4:1, 10, 고후 6:4, 비교 시 91:1-2, 31:20.
 3. 바울처럼 우리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수고하며 분투해야 한다 — 골 1:28-29.
 - a.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뭉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으로서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 골 1:12, 15, 18-19, 27, 2:3, 9, 16-17, 3:4, 11.
 - b.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공급해야 한다 — 엡 3:8-11.
 - c.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완전한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야 한다 — 골 1:25-28.
 - d.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한다 — 골 2:2, 9.
 - e.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공급해야 한다 — 엡 3:4, 1:22-23.
 - f.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지체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이럴 때 그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으로 자라서 성숙에 이를 수 있다 — 골 3:4, 요 6:57, 14:19, 갈 2:20, 엡 4:13, 15.

II.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한 새사람의 의식을 지닌 가운데 교회생활을 실행해야 한다 — 엡 4:13, 골 3:10-11, 4:7-17.

- A.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에 관한 기록은 믿는 이들이 교회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계시한다 — 행 5:11, 8:1, 3, 9:31, 11:22, 26, 12:1, 5, 13:1, 14:23, 27, 15:3-4, 22, 41, 16:5, 18:22, 20:17, 28.
- B. 우리는 몸의 의식, 곧 몸-의식을 가져야 한다 — 고전 12:26-27, 롬 12:15, 엡 4:16, 2:21-22.
 1. 몸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살고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2. 지방적으로든 우주적으로든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우리는 모두 한 마음 한뜻으로 몸을 의식해야 한다 — 행 1:14, 2:46, 4:24, 15:25, 롬 15:6.
 3. 우리가 몸을 더 많이 의식할수록 몸의 느낌과 몸의 화평을 더욱더 주의하게 될 것이다 — 롬 12:4-5, 15, 고전 12:26, 엡 2:14-16, 4:3, 골 3:15.
- C. 바울에게는 우주적인 한 새사람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또한 한 새사람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 엡 4:24, 골 3:10-11.
 1.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신실한 칭지기인 바울(고전 4:1-2, 9:16-17)은 한 새사람을 의

- 식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단순히 한 특정 지방에 있는 교회나 한 특정 성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한 새사람이었다 — 골 3:10-11, 4:7-17.
2.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한 새사람에 대한 계시와 한 새사람에 대한 의식을 실지적으로 보여 주는 실례이다.
 - a.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던 이들은 모두 실지로 한 새사람의 지체들이었고, 한 새사람의 의식을 가졌다.
 - b. 편지를 읽는 것에 관해 바울이 한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을 증명한다. 바울의 말은 교통과 하나와 조화와 친밀한 접촉을 암시한다 — 골 4:16.
 - c. 국적과 인종과 계층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한 새사람이 실행적으로 존재했다. 여러 도시들에 단지 지방적인 교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재적이고도 실행적으로 한 새사람이 존재했다.
 - D. 우리는 여러 나라들 안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한 새사람인 것을 보아야 한다 — 엡 2:15, 21-22.
 1. 모든 교회들은 단지 개별적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한 새사람이다 — 골 3:10-11, 4:15-16.
 2. 우리는 각각의 지방에 있는 교회를 새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보다 이 땅의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한 새사람이다.
 - a. 한 새사람은 지방적이지 않고 우주적이다.
 - b. 한 새사람은 단순히 개별적인 지방이나 개별적인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속한 것이다.
 3.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한 새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을 고려해야 한다 — 계 22:16상, 살전 2:14, 롬 16:4, 고후 11:28.

사역의 밑줄에서 발췌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이나 일꾼들이 많지 않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실지적으로 하나님의 왕가(王家)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은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뛰어난 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 속으로 분배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청지기 직분이 신약에 있는 사역이다. 신약의 사역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 속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들 속으로 분배했다. 이것이 오늘날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경륜의 문제요, 우리에게는 청지기 직분의 문제이다.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비록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사역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 속에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사람들 속에 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성경의 중심 요점이

다. 하나님의 경륜은 자신을 사람들 속에 분배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 즉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하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이 경륜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속에 분배된 후, 우리는 그 풍성을 다른 사람들 속에 분배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풍성은 하나님 편에서는 경륜이고, 우리 편에서는 청지기 직분이며, 그 풍성이 우리에게 의해 다른 사람들 속으로 분배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분배가 된다.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함으로써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분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경륜과 청지기 직분과 분배가 있다.

각 지방의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 속에 분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뛰어난 분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 속에 분배되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배는 청지기 직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지체들 사이에는 청지기 직분이 필요하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앞장서고 교회들을 돌볼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청지기 직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평범한 기독교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단지 성경을 외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급하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서로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성도들의 가정에 저녁 식사를 초대받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은 이러한 청지기 직분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바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작다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이 청지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또한 청지기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단지 사람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하는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매일매일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사람 안에 분배함으로써 청지기 직분을 완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청지기 직분의 한 몫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 모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원한다. 실질적인 교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심지어 안내나 집회소 청소와 같은 일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11장, 106-109쪽)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림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고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각 사람을 그리

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쳤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든지, 바울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성숙하여 충분히 성장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더해지셔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장에 더욱더 도달해야 한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넣어지심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느낀다. 나는 나의 사역에 관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영에 의해 경고를 받는다.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에 관해 염려스럽다. 이 책임에서 오는 부담이 나를 크게 짓누른다. 내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위임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는 바울의 관념은 오늘날 기독교 사역자들이나 목사들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역에 관한 바울의 관념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 장성한 데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관념을 가져야 한다.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볼 때,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추구해야 한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14장, 138-139쪽)

새사람의 의식(意識)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에서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바나바,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눅바, 야킵보 등이 언급되어 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눅바의 집에 있는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언급하고 있다(눅바의 집에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그의 집에서 모였다). 이 모든 이름들은 바울에게 새사람의 느낌과 의식(意識)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땅에 실지적으로 살고 있었던 새사람은 문화와 사회적 지위에 따르면 헬라인, 유대인,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스구디아인, 노예, 자유인 등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사람의 실지적인 구성 요소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의 유일한 구성 요소이시기 때문에, 이 새사람의 일부인 믿는 이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들 사이의 차이,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골로새에 있는 교회 사이에도 차이가 전혀 없어야 한다. 이것은 편지를 읽는 것에 관하여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여러분도 읽으십시오.”(4:16)라고 한 바울의 말에서 증명된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으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쓴 것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교통과 하나와 조화와 친밀한 접촉이 내포되어 있는가!

새사람의 묘사

이 열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구절들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새사람의 상세한 묘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새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이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많은 민족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로마 제국은 이 민족들을 문화적으로 통일시키려는 시도에서 헬라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이 다양한 민족들을 통일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민족과 종족과 사회 계층 간의 차이가 남아 있었다.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헬라인은 여전히 헬라인이었다. 노예와 주인과의 구분도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한 새사람이 국적과 종족과 계층 간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었다. 단순히 여러 도시에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새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었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31장, 291-293쪽*)

몸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고, 새사람은 생활을 위한 것임

몸은 생명의 문제이고, 새사람은 인격의 문제이다. 몸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행동을 위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바로 이 한 몸 안에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화해는 몸의 문제이다. 과거에 우리는, 당신은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나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각자 구원받았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릇된 관념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우리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한 단체적인 도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 도구가 무엇인가? 이 도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 안에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몸이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보여 준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하나의 행동이고, 이 행동은 몸 안에서, 몸에 의해 수행된다. 우리의 몸은 움직임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충분히 증가하고 자라야 한다.

그러면 새사람은 어떠한가? 새사람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새사람은 결정을 내리고 생활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람으로서 당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 몸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고, 새사람은 생활을 위한 것이다. 새사람에 관하여,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의와 거룩함은 우리의 생활의 상태이다. 따라서 새사람은 전적으로 생활의 문제이다. 새사람은 생활을 위한 것인데, 우리 생활의 팔구십 퍼센트는 결정을 내리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몸으로서 교회는 움직임을 위한 것이고, 새 사람으로서 교회는 결정을 내림으로 생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여 행동하고 일하고 책임을 짊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새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여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결정한다. 그러나 몸이든 새사람이든, 일하고 움직이는 것이든, 생활하고 결정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단체적이다. 여기에 개인적인 것이 없다. 당신은 오늘날 당신의 생활이 새사람의 생활 곧 단체적인 생활이고, 당신의 결정이 개인적인 결정이 아닌 단체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공장을 세워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여기에 일종의 생활이 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새사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본다면 당신

스스로가 인격이 되어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새사람 안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격으로 취하고 싶어 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인간 생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려 할 그 순간에, 자신을 인격으로 취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당신은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격으로 취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생활할 때 당신의 생활은 새사람의 생활일 것이다.

새사람의 생활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의(義)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함이다. 의는 하나님의 길에 따른 것이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것이다. 당신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크든 작든, 그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과 정확히 일치할 때, 거기에 거룩함과 의(義)가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생활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인적인 성화(聖化)의 생활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생활의 종류는 당신이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생활이다. 따라서 살아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의(義)이고 거룩함이다. 이것은 우리의 움직임이나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새사람의 방면이다. 다른 한 방면은 몸이다. 몸으로서 우리는 움직인다. 우리가 움직일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또 우리의 움직임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 자신의 생명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힘이신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더욱이 우리의 움직임은 개인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개인주의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우리가 단체적인 몸이자 단체적인 새사람임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생활이 단체적이고, 우리의 움직임이 단체적이다.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한다. 몸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격이시다.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지체이고, 새사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한다. 이것이 교회이다. *(한 몸, 한 영, 한 새사람, 100-104쪽)*